

North/South Interfaces in the Korean Peninsula

(발표내용 정리)

- 17, 18, 19 December 2008, Paris -

□ Building a Peace Belt in the South-North Korean Border Region(Seung-bok Lee : KRIHS)

- 발표 내용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남북공동선언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던 민간 주도하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능토록 하기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내용임
 - 즉, 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벨트 구축을 통한 단계별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 및 사업 프로젝트 등에 관한 것임
- 접경지역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토론자들은 비록 현재 남북한 접촉이 중단된 상태이나, 미래의 통일과 접경지역의 경제자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따라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남북한의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과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간 접경지역의 공동개발과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상호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주요 내용
 - 남북 교류협력의 배경 및 목적
 - 평화벨트의 필요성 및 개념 정의
 - 접경지역의 일반현황 및 여건분석
 - 남북한 교류를 위한 교류협력지구 및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 평화벨트 구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The impact of Kaesong Special Zone on the Material Heritage of a Historical City(Elisabeth Chabanol, Ferench School of Asian Studies)

- 발표의 주요 내용은 인구 60-80만 규모로 고대 로마와 비슷한 고려 수도였던 개성이 이제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같이 남북한 인터페이스(교류)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다고 하였음
 - 개성은 한국전쟁 당시 역사 유물이 많이 파손되었으나 여전히 고려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이 맺어진 정치적 의미를 가진 분단의 상징성도 띄고 있다고 하였음
- 특히, 개성 시민들은 더 이상 북한사람이 아닌 남한에 가까운 사람들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유는 평양과 다른 발음, 음식,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 공단에서의 한국 사람과의 접촉 등으로 개성이 다른 북한지역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개성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개성공단이 들어선 이유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경제교류협력 차원에서 현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모색할 때 우선적으로 전기시설과 물류시설을 고려하여 개성을 최적의 장소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음
- 남북한은 개성공단 건설에 따른 역사유물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해 개성을 3개의 지구(산업, 주거, 관광지구)로 구분하여 역사유적을 보전하고 있으며, 산업지구나 관광지구의 유물 보전은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조사 발굴 보전하고 있다고 하였음
- 주요 내용
 - Way, of all the potential sites for such an industrial project, has Kaesong been chosen?
 - Heritage Preservation? How can the two Koreas encounter?
 - Material and immaterial interfaces as a conclusion

□ The Sino-North Korean border and its adjacent areas in China: interface's places between both Koreans (Sebastien COLIN, INALCO)

-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에 있어 지정학적 의미의 인터페이스를 제한적 접촉, 접촉 단절, 교류의 3가지로 구분한 후, 이념적인 의미의 인터페이스를 “다른 속성의 2개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접촉을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실천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음
- 즉, 지정학적으로 인터페이스의 장소를 공간과 사회 사이에서 접촉, 교류, 상호작용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규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중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의 접경지역을 인터페이스의 대상으로 하였음
- 특히, 발표자는 근래의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접경지역의 교류는 그 동안의 전통적인 정치적 권력이 아닌 중국과 북한의 역전된 경제체도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중국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실체로 이미 인종적, 언어적 구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중국과 북한사이의 인터페이스의 사례로 단둥과 연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간 경제적 교류를 소개하였음
- 주요 내용
 - China : a principal partner for both Koreas
 - Chinese border regions with North Korea and the Chinese Korean minority
 -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an institutional interfaces?
 - The Sino-North Korean border issue: another kind of interface between both Koreas

□ Inter-Korean Maritime Dynamics in the Northeast Asian(Cesar DUCRUET, Center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 주요 내용은 남북한 사이의 무역이 주로 바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반해 일반적인 인식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한 후 지난 20년 동안의 남북한 물동량의 역학관계를 분석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교류 협력과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최근 해상 물동량이 전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주된 원인으로 육상의 DMZ 장벽을 지적하였으며, 더욱이 동북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의 지정학적 특성이 근래에 소련의 붕괴, 일본과의 교역 감소 등으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환경 변화(동부지역의 산업쇠퇴, 평양 인근의 산업활동 및 인구의 서쪽으로 이동) 등으로 남북한 해양 물동량의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발표자는 결론적으로 남북한 해양 교역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한 연결을 위한 최적의 루트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내륙의 교통수단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 하였음
- 그러나 북한의 항만 인프라 부족의 지속, 무역봉쇄 등은 남북한의 지속적인 해양 교역의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의 항만을 개선하기 위해 남한 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 회사를 설립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요 내용
 - Back ground on the Inter-Korean Maritime Dynamics
 - Short history of port development on the peninsula
 - The evolution of inter-Korean shipping
 - Inter-Korean Shipping within North Korea's Connections

□ Defector Politics: The political activism of North Korean Saet'omin(Danielle Chubb,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주요 내용은 탈북자의 개념 및 그들의 사회행동에 대한 것으로 발표자는 탈북자 문제가 남한사회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불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있어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공론을 회피하였다고 하였음
 - 그러나 지금은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와 중국 북한 국경의 탈북자 문제,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들 단체는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을 좌파 우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계, 법조인, 사회활동가, 탈북자 등으로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였음
- 또한, 발표자는 탈북자들의 지위에 있어 한국 헌법이 한반도를 한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을 이주민(migrant)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으며, 통일부는 탈북자들을 난민(refugee)이라 지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이들에게 ‘새로 정착하는 이들’이라는 뜻의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고 하였음
- 그러나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명칭 변경은 남한 정부의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이는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남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북한 군부를 자극하지 않을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 주요 내용
 - Human right in North Korea
 - North Korean human right and South Korea
 - Where to for North Korean defector politics?
 - Conclusion

□ The issue of the divided families revisited: an anthropological gaze(Elise Preben, Havard University)

- 주요 내용은 이산가족의 재회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과 이것이 남북한 통일 과정에 있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추진된 남북 이산가족 재회가 매년 850-1,20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이벤트 및 민주정치의 과정 상 필연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 규정하였음
 - 발표자는 방송 매체가 이산가족들의 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의 친인척 재회가 남북한 통일을 과연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였음
- 발표자는 한국 미디어들이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숫자가 아닌 1천만 명의 잠 못 이루는 영혼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회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심어주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 항상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음
- 한편 한국 사람들의 생전과 생후에 대한 샤머니즘적 사고를 빌어 비디오나 TV를 통한 이산가족 재회가 재이별에 대한 아픔과 친척의 사후에도 비디오를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미디어의 긍정적 역할을 지적하면서, 특히 재이별에 대한 체념이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이라 하였음
 - 만남과 이별에 있어 한국인의 정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비디오를 통한 이산가족 재회, 한국인의 감성을 보여주는 영화로 '태극기를 휘날리며'를 예로 들며 설명하였음
- 주요 내용
 - Altars at the border
 - Two scenes of a film
 - Conclusion

□ The two Koreas struggling for defining the collective identity of Kazakhstani Koreans(YIM Eunsil, EHESS)

- 주요 내용은 남한학자들이 경제력 차이로 남북한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졌다고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현실은 아직도 남북한이 한국화(Koreaness)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이라 하였음
- 발표자는 카자흐스탄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남북한의 영향과 경쟁을 분석하기 위해, 남북한이 카자흐스탄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등을 언급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아직도 조선이라는 말과 한국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음
 - 소비에트 시대에는 북한의 조직적 관리로 북한의 문화적 영향이 막대하였으나, 최근에는 남한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남한의 문화와 언어가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고 하였음
-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남한의 지자체, 기업체, 종교단체, NGO 등 여러 유형의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정부차원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였음
 - 특히, 북한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설립하여 카자흐스탄 조선인을 오래 동안 관리하였으나, 남한은 직업훈련센터와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최근 북한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조선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나 남한의 기업인들이 지원하는 경제력에 의해 북한의 입지는 갈수록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아직도 북한 쪽 성향이 깊다고 하였음
- 주요 내용
 - Conditions of competition
 - Forms and strategies of competition
 - Consequence of Competition

□ Inter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South:
A Socio-economic Interpretation(Eric BIDET,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발표자는 사회학 분야에 있어 인터페이스는 일반적 개념이 아니지만, 최근 사회적 지위, 속성, 상태 등의 요인에 따라 그룹이나 네트워크의 사회학적 인터페이스 연구가 활발하다고 하였음
 - 특히, 남북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탈북자들은 인터페이스의 사회학적 접근을 위한 가장 적절한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차원의 적응을 사회적 인터페이스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하였음
- 지난 '90년대 초까지의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은 최근과 비교할 때 훨씬 수월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선 탈북자들의 숫자가 적어 남한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았고 또한 탈북 목적이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상적 측면이 강한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김일성 사망이후 매년 탈북자 숫자가 배로 증가하여 현재는 14천명 정도로, 대부분 이념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으로 탈북한 사람들로 45만 명에 달하는 해외이주 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 인터페이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한 정부는 정착금을 줄이는 대신 직업 훈련을 통해 이들이 사회경제적 통합에 적응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직업 취득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하였음
- 주요 내용
 - Th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Main characteristics
 - Work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 Work integration or social exclusion

□ Art as an Interface: on the reception of Chosonhwa in South Korea(Koen De Ceuster, Leiden University)

- 발표자는 남북 분단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도 내면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남북한 간 진정한 인터페이스는 전제조건 없는 접촉이라고 하였음
- 즉, 남북한 교류의 성패는 북한의 참여뿐만 아니라 남한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남북한 인터페이스의 사례로 남한과는 다른 기법을 발전시켜온 북한의 조선화를 사례로 들었음
 - 북한의 조선화 기법은 남한 사람들에게 친근하기도 하면서 동떨어진 양면성을 가진 인터페이스 단절의 예로 설명하였음
- 조선화가 처음으로 남한에 알려진 것은 1992년 미술전람회로 이는 순수 문화교류라기 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미술을 남한에서 구매해 준 것으로, 발표자는 이런 경제적 측면이 아닌 정신·문화적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한의 이질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특히, 최근 우발적인 사건으로 남북한 정상간 합의된 과학기술, 교육,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며, 북한 정부의 문화적 우월성 등과 맞물려 향후 당분간 예술 부문에 대한 교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다행히, 현재 남한의 NGO에서 남북한 미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음
- 주요 내용
 - Conceiving of art as an interface
 - The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art in South Korea
 - The true art of Chosonhwa
 - Art in the DPRK
 -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s